

“제2의 국가정원 도전”...화순 고인돌 축제 준비 ‘착착’

19-28일 10일간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대에서 개최 로컬푸드 쇼핑·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대 관람 추천

화순군이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개최하는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준비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2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으로 봄소풍 가자!’를 주제로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대(춘양면 대신리, 도곡면 효산리)에서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유적을 비롯한 다양한 초화류로 봄꽃단지를 조성하고, 축제장을 총 9개의 존으로 확장한 관람형 봄꽃 축제로 부담스럽지 않고, 소박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9.1ha에 2만주의 초화류로 구성된 봄꽃단지는 가지무늬토기, 포도 조형물 등 20종, 97점의 꽃 조형물 전시와 13만9천주의 초화, 7만 주의 유채 육묘, 5만 주의 기타 전시 작물이 곳곳에 배치돼 축제장 전역을 화려하게 수놓을 전망이다.

이번 봄꽃 축제에서 포토 조형물의 경우 촛불, 장미 기둥, 꽃탑, 소원들어종, 고인돌 게이트, 육각 벤치, 장미 아치, 캐리더, 공룡, 청동거울, 꽃 불, 하트 4종, 문(door), 입석대, 서석대 등으로 관람객의 다채로운 취향을 최대한 반영했다.

올해 축제는 총 4개 분야 34개 프로그램, 5개 부대 행사를 준비했다. 공연 분야는 ▲2024 DM 버스킹(실력과 뮤지션들의 고인돌 야외 공연) ▲추억의 DJ 박스(레크리에이션, 리믹스 음악 재생 등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 ▲화순 예술단체 공연(통기타·하모니카 등 화순 지역 기반 예술 단체 동화회 공연) ▲가족 공연(인형극, 풍선·마술, 레크리에이션, 비눗방울 공연) 등이 구성됐다.

9개의 전시 분야는 ▲봄의 향기 주제관 1(봄꽃), 2(야생화), 3(다육) ▲초대



화순군이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대에서 2024 화순 고인돌 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도곡면 화순 고인돌 축제장(왼쪽)과 꽃강길 음악분수대 모습. (화순군 제공)



형 공연형 조형물 ▲고인돌 관련 조형물 ▲짚돌이 조형물 ▲몽환의 숲 ▲봄별 정원 ▲농기구 전시 등이다. 체험 부스는 총 15개 프로그램으로 ▲고인돌 스탬프 투어 ▲4대 포인트 인증샷 이벤트 ▲보물찾기 ▲소원존(뽕매바위) 이벤트 ▲선사체험장 ▲해드폰 사진 인화 서비스 ▲당나귀 꽃마차 체험 ▲포토이

즘 촬영 체험 등으로 다채롭게 채워졌다. 총 6개의 잔치상으로 구성된 판매 부스는 ▲향토 음식 코너 ▲단품 음식 코너(간편음식 제공) ▲푸드트럭 ▲농특산물 판매장터 ▲화순 미림(추억의 도시락, 샐러드, 호두과자 등 피크닉 공간 제공) ▲봄별 정원 등으로 방문객의 취향을 최대한 반영해 다양성을 추구했다.

부심을 일깨울 전망이다. 구복규 군수는 “화순 고인돌 유적지를 고인돌 축제 뿐만 아니라 상시 공원을 이룰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궁극적으로 제2의 세계적인 국가 정원으로 전환 예정”이라며 “축제장에 방문해 로컬푸드 쇼핑과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대를 감상을 적극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화순=이병철 기자



‘미래형 독서공간’ 곡성어린이도서관 문 연다

12일 개관...AI 도서추천 시스템·셀프대출반납 등 서비스

곡성어린이도서관(사진)이 오는 12일 도서관의 날에 개관한다.

곡성군은 2일 “오는 12일 곡성에 곡성어린이도서관(곡성로 903)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곡성어린이도서관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20억원, 군비 30억원 등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입돼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복합시설로 조성됐다.

지상 2층 연면적 1천400㎡ 규모로 1층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도서관과 사무실, 2층은 가족 자료

실과 어린이 프로그램실, 실감형 동화 체험실, 주민 커뮤니티실, 다목적실로 구성된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을 비롯해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2층에 위치한 ‘실감형 동화체험실’은 ‘2023년 문체부 공공도서관 창작공간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한 공간으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미래형 독서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 장서(보유 도서)는 어린이도서 1만여권과 일반도서 2천권 등 총 1만 2천여권을 갖췄으며, AI 도서추천시스템과 셀프대출반납기, 365일대출기와 모바일 도서관 등을 설치해 군민들

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에서는 12일 개관 기념 행사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 미술공연과 샌드아트 공연, 책과 함께 말랄라 등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 27일 오후 2시에는 볼로냐라가 치상을 수상한 ‘커다란 손’의 저자 최덕규 그림책 작가를 초청해 그림책 강연과 작가의 1인극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곡성어린이도서관 관계자는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이 책과 문화로 소통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고흥군, 결핵 예방·검진 홍보

고흥군 보건소는 2일 “결핵 예방 및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결핵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이나 객담에 섞여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며, 흉부 X선(X-ray) 검사, 가래(객담) 검사로 진단하며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

보건소는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보건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해 결핵 인식 개선과 손 씻기, 기침 예절 실천 등 지속적으로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제14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고흥읍 전통시장, 고흥군 노인복지관,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풍양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결핵 조기 검



진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사진)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 발견과 전과 차단이 중요한 질병인 만큼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진,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 무료 결핵 검진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결핵환자 관리 체계 및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핵 검사는 군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결핵 고위험군으로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다.

/고흥=최봉환 기자

구례,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 운영

구례군은 “최근 강원도 하이힐링원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원랜드가 주관하는 2024년 사회공헌 프로그램(금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아동들이 미디어 매체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터득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산림을 통한 자연치유 프로그램, 도전 중독타파, 디톡스 헬링, 힐링 오케스트라 등 스마트폰에 대한 통제력과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을 체험했다.

한편, 구례군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 관리, 복지, 건강, 상담, 부모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례=임종길 기자

이병노 담양군수 “축제·행사 준비 현장행정 추진”

4월 정례조례회 축제·인구정책 발굴 등 당부

이병노 담양군수가 4월 정례조례회에서 준비중인 축제 등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양군은 2일 “지난 1일 군청 송강정실(구 영화회의실)에서 4월 정례조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정례조례회는 이병노 군수, 정광선 부군수를 비롯해 간부 공무원, 전 직원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 군수는 지난달 군정 각 분야에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으며, 민선 8기 3년 차 1분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주요 역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부탁했다.

이 군수는 “개최 예정인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와 수북면 풍성산 파라미드 축제, 대표 축제인 제2회 담양대

나무축제가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 소득을 창출하는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길 바란다”며 “각종 현안과 축제 등 행사를 준비할 때 전 공직자가 군민과 동행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순천대, 글로벌대학 위해 부총장제 시행

국립순천대학교는 2일 “글로벌대학의 특화 분야별 혁신추진체계를 위해 부총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순천대는 지난 1일 교학부총장에 남기창 교무처장·교육혁신본부장(동물자원과학과)을, 대외협력부총장에 문승태 대외협력본부장·글로벌대학사업단 부단장(농업교육과)을 각각 임명했다. (사진)

신설된 부총장 체제를 통해 교육 체제 개편과 지역 협력 강화 등 글로벌대학 분야별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



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학부총장은 국립순천대의 핵심 역

신과제인 학문·학과 간 벽 허물기를 통해 3개 특화분야를 무학과(무전공)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사제도와 교육과정 혁신에 집중할 예정이다.

대외협력부총장은 특화분야별 지식협력 및 지식협력과 연계, 대학발전 자금 유치, 감소지역기업 육성을 지원하며 글로벌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인다.

한편, 부총장의 임기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2년이며 교학부총장은 교무처·교육혁신본부·학생처·입학처 소관 업무를, 대외협력부총장은 대외협력본부·글로벌대학사업단·발전지원재단 소관 업무를 각각 총괄·조정한다.

/순천=양홍철 기자

여수중앙시장, 화재 예방 전력케이블 안전관리 시스템 설치

여수울촌면 소재 ㈜엘시스 무상 설치

여수시는 2일 “최근 울촌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 ㈜엘시스가 중앙시장에 화재 예방을 위해 전력케이블 안전관리 시스템(i-CHECK)을 무상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력케이블 안전관리 시스템(i-CHECK)은 LS전선과 공동 개발한 것으로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은 배전반에 센서·데이터 수집장치를 설치해 온도 값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실시간으로 전력케이블의 상태를 분석하고 이상 징후 알람을 통해 화재 예방할 수 있다.

나명찬 ㈜엘시스 대표는 “겨울철 전

통시장 화재 발생 뉴스를 접하고 지역 기업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관내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통해 ESG경영을 실천하고자 이번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알렸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활동

이 지역 내 다른 기업의 재능기부를 유발하는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시설물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선진 기자

